



도덕선생님은 도덕적이려고 노력중입니다

강한겨레

도덕은 누구나 가르칠 수 있지만, 누구든 가르치다 보면 계속 고민하게 된다. 중학교 도덕 교사로서 도덕적 사고를 하라고 가르치지만, 현실은 도덕 교과서처럼 쉬운 답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도덕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 수업의 방식도 달라진다. 진정한 도덕성 향상에 초점을 두어서 다양한 인성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계신 반면, 고등학교 교과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지식적 측면을 중시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다. 도덕 교사가 된 이후, 늘 후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입시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사가 되고자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덕 교과서에서만 마주하던 도덕적 딜레마가 눈앞에 다가왔다.

12월 중학교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의 입시에 총력을 다하던 토요일, 근무하고 있는 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한 평가로 소집되었다. 학생들 고입이 코앞이었지만, 학교에 좋은 선생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기에 신규 교원 평가에 참여했다.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점을 해야겠다고 다짐했고, 빠르게 업무를 끝내고 담임반 학생들의 고입을 도와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다짐과 생각은 하루가 안되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선생님들의 교육학 논술 채점을 맡으면서,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를 수료한 만큼 공정하게 채점을 하고자 노력했다. 나를 공정하게 채점을 끝냈다고 생각했고, 모든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좋은 선생님이 뽑히시기를 바랐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학생들과의 모의 면접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채점에 관여했던 이에게 전화가 왔다. 반복되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기에서는 안부와 함께 해서는 안 될 요청이 들어왔다. 간략히 결과를 정리하자면 채점 결과와 관련해서 학교에 잠시 와달라는 요청이었다.

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도덕 교과서의 내용이 떠올랐다. 도덕 교과서의 청렴 단원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입시에 중요하지 않기에 넘기는 부분이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청렴'은 그 순간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다. 교과서의 내용을 따라 읽으면서, "이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훑고 넘어갈 거야."라고

말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특히, 교과서에 나오던 "개인이 친분을 이용해 쉽게 취직을 하는 사례"라는 구절 속 그 사례가 우리 학교의 이야기이며,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전화기 속 상대방의 "학교로 돌아올 수 있나요?"라는 물음에 "채점에 문제가 없다면, 딱히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하고 통화를 마쳤다.

하지만 다시금 전화가 왔다. 그리고 그는 채점 결과에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 본인들이 뽑으려던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마음을 꺼냈다. 통화에서 말을 잇는 동시에,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하나 고민했다. 그러면서 '부패 방지법이나 공익신고자와 내부 고발인 보호제도'라는 교과서 속 구절이 떠올랐다. 통화를 이어가면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검색했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는 가르칠 일이 없었던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실명대리신고에 대해서 급하게 공부하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학교로 오라고 재촉하는 분들에게 일정이 있기에, "월요일에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통화를 마친 후, 계속해서 정보를 찾았다. 그러면서 도덕 교과서는 공익신고를 하라고 하지만, 공익신고자들이 겪는 불행한 삶을 다룬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서 공익신고를 해야할 지를 고민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관실 담당자의 휴대폰 번호를 얻었다. 감사관실 담당자의 휴대폰 번호를 얻었을 때, 다시금 전화가 왔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화를 시작했다. 권위적으로 다시 학교로 종용하는 말을 들으면서, 오늘 끝을 보아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긍정의 의미로 대답을 하며 통화를 마쳤다.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동시에, 감사관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지만, 지속되는 전화에 감사관실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다. 채용 비리에 가담해야하는지를 고민하던 나에게 그가 대답했다. "선택은 선생님의 몫입니다. 선생님에게는 가담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가담하되 모든 과정을 녹음 및 증거를 모아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고민 끝에 후자를 선택했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 내내 무거운 어깨와 함께 가슴 한편이 갑갑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 자료나 매뉴얼, 그리고 공익신고에 성공한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자료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로 돌아가자, 그들은 나에게 함께할 것인지를 물었다. 어차피 그들은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었다. 그런 그들에게 나 같은 일개 교사 말이 먹히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가자마자 그들은 나에게 바꾸어야 할 채점표를 제공했다. 기존 채점표대로라면,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없는 사람의 점수를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고쳐주었다. 점수를 고치는 그 불합리한 모든 과정을 녹음했고 자료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시키는 대로 점수를 고치는 나의 모습에 웃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가는 현실에 마음 아팠다. 그리고 다시는 나 같은 권위에 의한 피해자이자 비리에 감담한 가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교사들은 대학에서 교직 수업으로 교육평가를 배우고, 교원 임용 시험 시에도 교육평가를 물어본다. 평가의 핵심은 반복해서 시행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신뢰도와 원하는 구인을 제대로 측정해야 하는 타당도이다. 잘못된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육에 개입하는 순간 교원 선발 고사라는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땅으로 떨어지게 된다.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권위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불안한 마음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밤을 지새웠다.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이 왔다. 점수를 고칠 것을 요청한 이가 다시 오라고 인터폰을 했다. '혹시 점수 고친 것을 원복하려는 것일까?'라는 기대감에 찾아갔지만 행동을 정당화하는 말만 듣고 왔다. 본인의 선택은 옳다는 비논리적으로 점철된 주장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거기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한심했다. 모든 내용을 비밀로 하라고 압박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항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도덕 교사로서 부끄러웠다. 그와 동시에 나도 이런 과정으로 붙은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까지 엄습했다.

그 설명이 머리에 멤돌면서 도저히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월요일에 모든 일을 마친 후 교육청 감사관실로 향했다. 감사관실에서 진술서를 쓰면서도, 인터넷에 접했던 공익신고자들이 당했던 암울한 역사가 떠올라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공익신고 이후 사립학교 재단에서 불합리한 징계로 파면과 해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 정신과에 입원했다는 정보를 접한 터라 불안하기만 했다. 그렇지만 감사관실에서 모든 증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어도 도덕 교사로서 최소한의 도덕성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감사관실에 모든 자료를 넘기고 오면서 죄책감과 두려움이 내려올 수 있으리라 기대했었다. 하지만 사안에 가담한 사람이 적은 만큼 공익신고자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해당 사안이 복잡하여 어떻게 처리할 지를 이야기 해보겠다는 감사관실의 말에 심란해졌다. 특히, 1차 발표 후 얼마 안되서, 바로 2차가 진행되기에 마음은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 신고를 한 채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열심히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실명 대리 신고가 눈에 들어왔다. 변호사를 끼고 진행할 수 있다는 말에 더 안심이 되었으며,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청뿐 아니라 경찰 조사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바로 비실명대리신고 지원 변호사 중 한명에게 연락을 하여, 변호사님과 신고 작업에 착수했다. 변호사님과 작업을 하면서, 우리 학교가 저지른 잘못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평가의 전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내가 채점한 과목에 대해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팠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기대어 결과를 기다리던 중, 교육청이 우리 학교의 채용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방문하는 날짜가 정해졌다. 그렇게 교육청 감사관실이 학교에 찾아왔다. 찾아오기 전까지 문제를 저지른 이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예상은 못한 채, 본인들은 문제가 없다고 걱정이 없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 도덕적 성찰이 가능한 사람들인지 생각이 들었다. 끝까지 모든 과정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넘긴 감사관실 자료에 점수 조작을 요구하는 이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그와 동시에 나의 시련도 시작되었다.

사건 조사가 시작되자, 변명과 함께 나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특히, 학교 관련 채용 비리 뉴스가 나오자, 가담자들은 당황한 듯 보였다. 학교의 분위기가 점차 어수선해지자, 해당 뉴스가 우리 학교로 특정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발이 저렸던 듯 전 교직원이 특별실에 불러모였다.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꺼냈다. 억울하다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이 동조하고, 공감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과 함께 사람들이 공익신고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현실에 마음 아팠다. 적어도 어떤 과정으로 이 일이 발생했는지를 아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마도 사람들은 권력이 없는 일개 평교사인 나의 목소리를 들어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사립학교는 하나의 재단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기에, 좁은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62세까지 근무해야 한다. 이 사안이 터지자마자, 높은 분들은 당연히 나를 의심했고 나에게 대한 뒷담화를 시작했다. 내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건너 들으며 공익신고가 잘못되었는가 성찰했다. 점차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되어가면서, 억울함은 더욱 치밀어갔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진실보다도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하기를 싫어한다. 더불어 이 사안은 내가 만든 것이기에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나서지 말고 이 일로 생긴 피해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라는 몇몇 선생님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안 좋은 선택까지 고민했다. 이 비리를 내가 만든 것인가하는 고민만 깊어졌다. 잘못된 죄책감과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유서를 쓰고 몇 번을 고치면서 비리를 저질러도 침묵해야만 하는 사립학교의 현실에 무너져갔다.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만큼 방조하는 사람도 나쁘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교사들 역시 권위에 복종하는 방관자들은 아닌지 의심했다. 그 누구도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의 자아는 침전되었다. 그렇게 인터넷에서 보아왔던 사립학교 공익신고자들의 최후와 관련된 부정적 이야기가 결국 내게도 이어진다고 느꼈다.

하지만 평범한 사립학교 공익신고자의 비극으로 끝날 뻔했던 나의 이야기는 주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점차 바뀌게 되었다. 공익신고를 하는데 도와주신 협조자 선생님, 그간의 부정이 있었음을 증언해주시고 본인이 당했던 문제를 녹음한 후 제공해주신 선생님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특히, 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님들이 해당 인물들을 직위해제시킴으로써,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다. 소중한 분들의 배려 덕분에 3학년 담임으로서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졸업식 인사를 건낼 수 있었다.

모든 선생님들이 공익신고자의 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많은 분들이 몰래 응원을 해주셨다. 특히, 어머니 나이 또래의 여선생님이 간식과 함께 힘내라며 준 선물에 1월과 2월을 감사함으로 보냈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에게는 낯 놓고 우울할 기회조차 누리기가 쉽지 않았다. 울적해지려고 할 때쯤이면, 경찰과 감사관실에서 불려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된 말을 할까 불안했던 만큼 비실명대리신고를 할 때 변호사님을 고용하여서 조사를 받았다.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경찰과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비까지 들었다. 그렇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배웠다.

이사장님과 학교 선생님들의 배려로 신학기의 초반을 병가를 내고, 사건과 멀어지기 위해 노력했다. 공익신고자가 쉬면서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공익신고자가 쉬는 동안 온 정신은 학교에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학교 이사회의 도움으로 채용 비리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들이 받은 징계를 보면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공립학교 교사라면 마땅히 받아야 할 강등이 사립학교 징계 규칙에 누락되어 있음에 분노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물의를 일으킨 이들이 법적인 이유로 학교로 돌아오기 쉽지 않아졌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았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우리 학교에 대한 뉴스와 기사가 인터넷과 지면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걸 보면서, 공익신고자로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섰다. 꽃피는 5월이 되었고, 나는 그렇게 복직을 결정했다. 복직하자마자, 학기 초 내가 보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학술 활동을 했다고 약간의 거짓말을 해야 했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이유는 쉬는 동안 사립학교의 비리와 징계에 대한 논문을 썼다. 더불어 사회 정의 단원과 연계한 수업 대회에 참여해왔다. 그렇기에 학술 활동을 했다는 것이 완벽하게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학생들에게 숨기는 것이 올바른지 의심했고 동시에 공익신고자라는 것을 숨겨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그렇게 공익신고자로서, 다시 시작하는 학교 생활에 잘 스며들고 있을 때 한 학생의 질문은 호흡을 가다듬게 만들었다. 사회 정의 단원 내용을 수업할 때, 학생들 중 누군가가 “비리를 저지른 곳에서 정의를 가르쳐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했다. 언론과 기사는 학교가 저지른 문제를 학생들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 아팠다. 그 말을 듣고 학교에서 당했던 억울한 차별들이 생각나 학생의 말에 약간 공감도 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익신고 후 따뜻하게 해주던 선생님들과 이사장님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학생의 질문에 대한 반박을 시작했다. “분명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비리가 드러날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도움과 협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그 누구보다 먼저 그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근무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는 충분히 정의로운 공간이 아닐까요?” 나의 대답에 “오우”를 외치는 학생들을 보면서, 도덕 교사로서 약간 뿌듯했다.

그런데 그 학생의 그 질문은 내가 가지고 있던 우리 학교에 대한 인식의 프레임도 바꾸어 주었다. 분명 우리 학교는 다른 사립학교들과는 다르다. 뉴스에 나온 다른 사립학교들은 문제를 은폐하고, 비리 주동자들을 감싸기 급급해왔다. 더불어 비리 사학에서는 공익신고자들을 오히려 징계를 내릴 때, 우리 학교는 공익신고자를 지켜주었다는 현실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는 우리 학교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학교에는 더 이상 문제와 비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없다.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와 협조자들, 그리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사장과 재단 이사진들이 있다. 아마 공익신고자를 지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분들 덕분에 공익신고자로서 무사히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었다.

우리는 일상의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과 올바름을 잊고 산다. 공익신고 전까지, 도덕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피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라고만 가르친 것은 아닌지 성찰하게 되었다. 더불어 나는 나이를 먹고 어떤 선생님이 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나이를 먹고 본인이 하는 행동이 교육자로서 청렴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후배 교사가 가는 옳은 길을 응원해주는 선배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지금의 소박한 소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우리 학교의 이야기가 다른 학교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며칠 전 방영된 다큐멘터리를 보면 공익신고자들의 삶은 대부분 우울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그렇지만 지금 나의 삶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행복하다. 공익신고 후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유서를 쓰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것이다. 긴급 출동으로 경찰이 우리집에 왔을 때, 경찰분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건내주셨다. 지금 이 글을 읽는 공익신고자가 있다면,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비리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슬픔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 공익신고자의 슬픔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징계 이전에 사립학교에서 비리 당사자를 즉각적으로 직위해제 시킨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그 얼마 안 되는 사례가 되었고, 덕분에 무사히 나의 업무를 마칠 수 있었다.

두 번째 소원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다. 뉴스를 검색해보면, 학교에 대한 비리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 학교는 비리 학교가 아니다. 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비리 학교라는 오명이 생겼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학교의 명예와 정직과 청렴의 가치를 지키려는 이들이 있다. 우리 학교는 정의를 실천하려는 선생님들이 계시며, 적어도 그 용기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학교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도덕 선생님은 오늘도 도덕적이려고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